

경제

2011 새해에는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

“지역 농축산물 판매 3조 달성”

“자연 재해와 가축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제공하는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용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18일 본부장실에서 “기상 이변과 가축 질병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과 가입 대상을 확대해 농업인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올해는 경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돼야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올해 지역 농축산물 판매 목표를 3조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2조7000억원보다 11%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그는 유통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인은 농산물의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산지유통시스템을 혁신해 판매를 전담해야 한다”며 “기존 작목반을 개편해 공동생산·전속출하·공동계산을 의무화하는 공선출하회와 시·군단위 연합사업단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재 112개의 공선출하회를 150개로 늘리고, 연합사업단도



연합사업·공선출하회 확대
친환경제품 급식학교 2배로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연합사업단 중심의 판매전담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광역(도)단위 연합사업으로 지난해 참다래에 이어 올해 단감을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과 하나마트 대형화·시설현대화를 통해 판매액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수도권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8년 연속 전국 우

수브랜드 쌀에 최다 선정된 고품질 전남쌀의 영예를 올해에도 이어가야 한다”며 “전남도와 공동으로 미질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고품질 전남쌀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또 “지리산 순한한우·녹색한우·해두부포크 등 전남지역 광역 축산물 브랜드가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생산·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뿐만 아니라 금융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협의 ‘신용-경제 분리’가 절실하다”며 “올해 창사 50주년과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한 농협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농협에 입사해 순천중앙지점장, 농협중앙회 심사실장, 채권관리실장·개인마케팅부장, 광양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사진=나명주기자 mjna@

은행권 가산금리도 인상...대출 이자부담 ‘칩칩산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6개월 변동형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은 코픽스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기준금리’에 조달비용과 영업이윤,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에 그동안 만기 구분없이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지만, 비용 차이 등을 고려해 만기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연동 주택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분 0.23%포인트에 가산금리 인상분 0.1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0.36%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만기 5년 이상은 이날 연 4.21~5.61%로 전날보다 총 0.36%포인트 올랐다.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0.4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만기 2년 이상~5년 미만은 0.28~0.36%포인트 올랐다.

만기 2년 미만은 0.13%포인트 인하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

객 대부분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고객 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는 잔액기준 코픽스연동 대출의 금리는 가산금리 인상분 수준인 0.5~0.13%포인트(만기 2년 이상) 올랐다.

기업은행도 잔액기준 코픽스연동 주택대출의 가산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1년만기 대출의 금리가 연 4.44~5.04%로 0.10%포인트 올랐으며 3년만기와 만기 5년 이상 대출의 금리도 연 5.04~5.64%와 연 5.09~5.69%로 각각 0.10%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를 4.09~5.24%로 고시해 최저금리를 0.16%포인트 인상했다. 최고 금리는 0.03%포인트 낮췄다.

앞서 은행들은 기준금리인 CD 금리 상승을 반영해 이번 주 초 CD 연동형 주택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일제히 0.18%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 경우 대출금리가 0.36%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72만원 늘어날 수 있다.

연환뉴스

“할인해 주고 상품권 주고” 카드사 설맞이 이벤트 풍성

신용카드사들이 신묘년 설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하고 홈페이지(www.bccard.com)와 ARS(전화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토끼 그림을 제공한다.

31일과 2월1일에는 전국 롯데마트와 고속도로의 SK주유소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특별 제작된 세뱃돈 봉투 11만 세트를 줄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6일까지 롯데상품권카드를 30만원, 40만원, 100만원 구매시 각각 5000원, 1만원, 3만원짜리 카드를 추가로 제공한다. VIP 고객을 위한 100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도 100개 한정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짜리 롯데상품권을 준다.

삼성카드는 이마트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인기 선물세트를 사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삼성카드를 선물세트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제공한다.

하나SK카드도 삼성카드와 같은 기간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결제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이마트에서 하나SK카드 모바일카드를 결제하면 상품권을 2배로 받을 수 있다.

연환뉴스



18일 오후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가 북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북구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곡동 이마트 저지대책위, 건축허가 특혜의혹 제기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대책위는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인 ‘상월리제 코리아’가 북구청으로부터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6일 ‘STS개발공사’로

등기를 이전했다”며 또 “새로운 건축주가 대형마트 입점 일할 공고를 내고 바로 이마트가 입찰에 응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자마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각종 부실 심의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주변 교통량은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것보다 최대 60% 가량 축소됐다”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교통 혼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북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통과 자연녹지지역 내 판매시설 등 용도가 다른 2개 동을 단 일 건물로 허가하고, 지상 2층 철골구조물이 들어서는데도 녹지지역 건폐율 기준(20% 이하)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교통영향 평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축법 등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해 행정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

“소중한 분들께 금강상품권 선물하세요”

다가오는 설 명절.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때 금강에서 준비한 금강상품권은 연령대, 취향, 스타일, 기능성별로 선택해서 선물할 수 있는 슈즈 아이템과 실용적인 소품을 선물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강 상품권은 슈즈 뿐 아니라 하나의 상품권으로 아웃도어 의류, 골프 의류, 신사복 등의 패션 의류와 핸드백과 지갑, 액세서리

등의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30여개의 다양한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금강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가 꾸준히 늘어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상품권 구입은 수도권은 물론 130개 도시 400여개 매장에서 금강제화, 랜드로바, 레노마, PGA TOUR 및 백화점 매장, 대리점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가격대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text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Segistar Hearing Aid: The stage of the century is the world!).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nd its regional branches.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GMP)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 addresses and phone numbers across South Korea.